

광주시, 비정규직 63명 첫 정규직 전환 완료

청소·시설 관리·주차 담당 직접 고용 이어 공무원으로 연말까지 698명도 전환 계획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014년 시장 취임과 함께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2년 6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광주시는 2015년 시장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도해왔다. 윤 시장은 당시 처음으로 직접 고용했다 63명을 이번엔 공무원으로 전환해 정규직화의 약속을 지켰다.

광주시는 용역업체에 채용돼 시장에서 청소, 시설관리, 주차 등의 업무를 맡아 오다가 2015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74명 가운데 63명을 지난 10일까지 정규직인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 초과 11명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고용 노동자 698명도 올해 말까지 전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14일 오전 노동자들의 공무원 전환을 기념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소망을 담아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최영일 민주시민회 회장, 나인수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승환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 전환 노동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시청 내 공원 휴게마당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공무원 전환 노동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 '다섯 가지의 약속'이 새겨진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공공의 책임과 소임을 다짐했다.



일자리 소망 날리기 윤장현 광주시장과 공무원 노동자 등이 14일 광주시청 내 공원 휴게마당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직 전환을 기념하는 식수를 한 후, 평등한 일자리를 소망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사회양극화 시대를 맞아 공정한 노동모형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을 넘어 평등한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청소, 주차 등 74명을 시작으로 시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772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어려움을 겪었던 기준 인건비 제도와 공기업 경영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걸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공사·공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시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안 변경을 이끌어내 기간제 노동자가 공개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타 지자체에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고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전남대학교는 시 벤치마킹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자 180명을 전환했고, 올해 1월 국회는 청소용역 근로자 207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기아자동차가 사내하청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광주시는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시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토지 경계분쟁, 주민 설명회서 해소하세요

광주시는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측량해 정확한 수치로 새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해당 사업지구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는 올해 5개 자치구 중 서구, 남구, 북구에서 개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동구 '선교1지구', 24일에는 광산구 '동림1지구'에 대해 진행한다.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치구에서는 광주시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시는 4월께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치구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올해까

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20억을 투입해 지적공부 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18만50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해 정확한 수치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정철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추·토마토 재배법 강좌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6일까지 밭고을농업대학 가지과 (고추·토마토)반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농업대학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이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입학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kwangju.go.kr) 또는 인력육성팀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1회로, 주요 교육 내용은 농작물 토양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및 일반교양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육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1회로, 주요 교육 내용은 농작물 토양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및 일반교양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민 모두가 광주의 얼굴... '광주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

광주시는 2017년 '광주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생활 속 자원봉사를 정착하고,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시민의 시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자원봉사 참여,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관용과 배려,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설정하고 ▲우리 이웃과 친구되기, 식구 되기 365캠페인 ▲자원봉사와 여행을 함께 하는 맞춤형 나눔 불편투어 참여하기 ▲나의 봉사활동, 내가 만난 이웃 인터뷰 SNS에 올리기 ▲힘을 주는 한마디 자원봉사 응원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2017년 광주자원봉사의 전략 액

심사업으로 시민 생활 속에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 참여확산과 자원봉사 거리 조성사업인 '봉사로(嚮) 건강(GO)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빛고을 남도 불편투어 프로그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500인 원탁 및 정책토론,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변화 연구 등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접촉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변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들은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과제 중 '어려운 이웃과 손잡

기', '풍요로운 여가문화 만들기', '함께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 우리 지역 곳곳에 생활 속의 자원봉사활동이 꽃 피우는 한해를 만들 계획이다.

자원봉사를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광주시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65),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www.1365.go.kr)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체계적으로 관리돼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맞춤형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행사·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의 자원봉사 인식 확산과 시민의식 성장의 계기가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병무청 내달 9일까지 전문 의무병 온라인 모집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의료자격 소지자와 전공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문 의무병'을 모집·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 의무병이란 해당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를 모집·선발해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의 전문직위에서 복무하게 하는 모집 제도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6개 분야다.

전문 의무병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군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으로 선발해 오는 5월부터 임용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부가 들려주는 토종씨앗 이야기

광산구 콘서트 120명 참여

"이건 오리알데, 한아기리콩, 개새 배당상추, 예! 쥐꼬리무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최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토종씨앗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이색적인 콘서트가 개최됐다.

전라씨드림(공동운영위원 변현단)과 광주도시농업시민협의회(공동대표 이종국)가 공동 주최한 '토종씨앗 나눔&토콘서트'로 우리 토종씨앗을

본 시민들의 갑탄이 끊이지 않았다.

씨드림은 Seed(씨앗)과 Dream(꿈)의 합성어로 토종 종자의 수집과 보전 및 증식을 전통 농법을 통해 시행하여 종자 주권과 생명을 지키는데 뜻을 둔 모임이다.

120여 명이 함께 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토종씨앗을 지키며 농사짓는 한원식(순천) 씨를 비롯한 농부 7명이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로 얻은 작물별 특성과 재배법을 소개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전자제품(일체무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성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앞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주역 1분 / 현정례식장 운영 연매출 약 60억 !! ▶감정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무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의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